

야외음악당 철거·재건축 논의 신속히 진행해야 교수회관 식당 확장 필요성 제기

위험하지만 장소의 부재로 음악당에서 공연하는 학생들
몇 년째 철거 계획 갖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지연
학생들 안전한 문화생활위해 철거·재건축 돼야

잔디광장에 위치해 있는 야외음악당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야외음악당은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아리, 주말에 학교를 찾는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제나 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11월 3일 열린 '너나들이(회장 고경훈 수산생명학과 4)해양과학대학 학생회가 준비한 너울제에서도 학생들은 야외음악당에서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울퉁불퉁하고 파인 바닥을 보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1980년 증축된 야외음악당은 현재 공연장 바닥이 평탄하지 못하고 금도 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에 시설과(과장 오순철)도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과거 시설과 관계자는 "훼손 정도도 심하고 사용횟수에 비해 유지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마련 되는대로 야외음악당을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년째 철거 계획만 잡혀 있을 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야외음악당의 철거 문제는 2014년 '진짜' 총학생회 때부터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철거가 제기돼 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 공연·축제장의 부재로 여전히 위험한 야외음악당을 사용하고 있다.

타 대학들은 노천극장, 야외음악당 등 교내에 마련된 무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뤄지지만 제주대는 학생회관 앞에 있는 한라터 무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곳마저도 소음 때문에 수업에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힘든 상황이다.

익명의 학생은 "야외음악당이 위험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곳을 제외하고는 축제를 진행할 무대가 부족하다"며 "경상대학, 인



11월 3일 진행된 해양과학대학의 축제인 너울제에서 학생들이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다.

문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주변에 빈 공간이 어느정도 있어 축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자연대, 공과대, 해양대 학생들의 경우 그런 공간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당백'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위태위태한 야외음악당을 철거 후 재건축해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돕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당백' 관계자는 "현재 야외음악당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며 "당선이 된다면 학생들의 안전한 문화행사를 위해 야외음악당 철거와 무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철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상황과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점에서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과 문화생활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건 기자

수요에 비해 공간이 태부족

연구원 이전과 공사비 해결 우선

"이 좁은 공간 안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수업시간 늦을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먹을까?" 이는 점심시간, 사람이 붐비는 교수회관의 모습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수요가 많은 교수회관 식당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희철 학생처장, 이하 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교수회관 식당은 현재 조식, 고기국수, 순대국밥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하루 평균 약 4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수요는 높고, 공간은 한계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황우화 생협사무국장은 "특정시간에 사람이 몰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오랜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공간이 확보돼 확장을 할 수 있다면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생협 측은 교수회관 식당 1층해 위치

한 탐라문화연구원원이 이전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2017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오픈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희철(무역학과 교수) 학생처장은 "확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다"며 "하지만 문제점은 확장을 할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이외에도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진순화 기획평가과 과장은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협 측의 의견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존에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탐라문화연구원과 기획평가과, 생협이 협의를 통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운(국어국문학과 교수) 탐라문화연구원장은 "인문대학 1호관 3층으로 이전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 공자학원이 들어왔다"며 "최소한 현재 탐라문화연구원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만큼 확보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수회관 식당의 확장공사에 대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공간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학교 당국의 속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김해건 기자

탐라문화연구원, 12일 칠성대 기행 인문체험 행사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행사 추진
고대의 제주를 새롭게 읽어 낼 수 있는 기회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동운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원도심 일대에서 칠성대 기행 체험을 진행한다.

인문도시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인문체험 행사는 '탐라의 별빛으로 찾아가는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선 강문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칠성대 터를 기행하는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에는 '칠성통'이라는 지명이 전하는데 이는 고대 탐라왕국 시기부터 전승돼

온 것으로 원도심의 중심지역을 말한다.

탐라왕국은 연맹왕국 단계에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 왕국의 위상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향해했던 해상왕국임이 확인되고 있다. 거칠고 험한 격랑을 헤치면서도 항해가 가능했던 이유로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항로를 찾아내는 항해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칠성통'은 '칠성대'가 있어서 생긴 지명이지만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뜻하는 것이며 항해술의 정점이 바로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항로를 찾는 것이어서 방법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탐라왕국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칠성대의 인문학적인 해석과 동시에 체험이 이뤄진다면 고대의 제주를 새롭게 읽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것은 제주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이므로 이에 대한 인문학적 탐방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탐라문화원은 설명했다.

인문학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도내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착순 40명에 한해 접수가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064-754-2310/010-9666-9181).

김해건 기자

곽정은 작가 젠더특강 진행

프리랜서 작가이자 방송인인 곽정은 씨가 젠더특강을 실시한다.

11월 16일 오후 4시 경상대학 2호관 1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편견 없는 나, 두려움 없는 나'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비주얼셰어링 이지현 대표, 제주어민회 이정선 대표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다.

취업전략본부 이미수 연구조교는 "남녀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주제에 맞는 강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곽정은 작가를 초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곽정은 작가는 현재 코스모폴리탄 피쳐 에디터이며 JTBC <달하는대로>에 출연하고 있다. 또한 작가로는 <우리는 어쩌서 이토록>, <내 사람이다>, <혼자의 발견>을 썼다.

김해건 기자



'함께성장여행'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장 김희철 무역학과 교수)가 10월 29일 올레길 10코스(서귀포 사계리)에서 장애·비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성장여행'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이번 행사

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장애인을 위한 배려심 많은 사회인으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실제 여행을 하면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동로나 편의시설을 직접 경험해보니 장애학생들이 평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편이 많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국가 연구개발비(R&D) 부정수급, 여러분의 용기있는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 대상

연구개발비(R&D) 편취, 횡령, 부당집행 등 부정사용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과제와 무관한 장비, 자(資)재(材)물품 구입
- 연구기자재, 재료 구입비 부풀리기
-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정산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횡령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
-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하여 연구개발비 편취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스번호 : (044) 200-7972
- ▶ 우편·방문 : (03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미근동 257) (인공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학교 측과 협의해 공약 이행 노력

11월 1일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토론회 열려 구체적인 공약 실현방안 언급 없어 아쉬워

총학생회 후보자 1차 정책토론회가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는 단독입후보한 ‘일당백’ 총학생회 팀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학생들이 제각각으로 느끼는 장학금, 학사 제도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중앙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가 후보자가 없는 곳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기도 했다.

◇인권에 대한 질문 쏟아져
학생들은 장애인 인권 대책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후보자는 “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학교 측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실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부족
‘일당백’ 총학생회 후보자는 수강신청 마일리지 제도 같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조현아(언론홍보학과 3)씨가 “공약으로

내건 수강신청 마일리지제도가 연세대 등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고 묻자 김진경 일당백 총학생회 부후보자는 “이 공약은 기존 수강신청 문제점을 해결할 확실한 대안이 아니고 제주대만의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지환(정치외교학과 2)씨는 “서로서로 버스(시험기간 서귀포 운행 버스 운영)에 대해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 홍보 문제로 수요가 적는데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는 내용 많아
또한 김해진(정치외교학과 3)씨가 “인권센터 설립 등 다수의 공약에서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는 대답이 많다”고 묻자 양은총 총학생회 정후보자는 “우리 예산이 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학생들의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며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공약을 이행하



11월 1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일당백’ 총학생회 후보자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다.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생회 관심 부족
김은솔 공과대학 대의원의 부의장은 “올해 공과대학 학생회가 없어서 공과대학 대의원에서 검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자치기구나, 단과대학 학생회가 공식일 경우 이 번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은총 ‘일당백’ 총학생회 정후보자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생회의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며 “학생들과 원

활한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청년정책 관심 갖겠다
김민해 일소일향 총대의원장은 “내년 대선으로 인해 정후보자는 소신껏 후보자를 지지할 건지”를 물었다. 이에 양은총 ‘일당백’ 총학생회 정후보자는 “일만 아라 학생이 투표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지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자의 청년 정책에 어떠한 것인지 관심은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토론회는 11월 10일 오후 1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린다. 김동현 기자

“대통령 해야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

제주지역 교수들 시국선언문 발표

제주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어 발표

제주지역 대학교수들이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야와 여야정치권이 즉각적인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대·제주국제대·제주한라대교수들로 이뤄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상임대표 윤용택 철학과 교수)’가 주축이 된 이번 시국선언은 이틀만에 117명의 교수의 서명을 받아 진행됐다.

이들은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충격에 빠지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수들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기본적인 자질과 양심을 갖추지 못했기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정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로 책임총리를 세우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조종하면서 호가호위한 부패세력을 말소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조사, 비리관련자들을 처벌, 새누리당의 해산, 무너지 헌정질서의 회복과 산적한 국가 현안문제들에 대한 야당의 노력, 국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정치에 반영될 수 있

게 비례대표제 강화 등의 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 상식을 뒤엎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며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공공성의 토대가 무너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문을 마무리했다.

윤용택(철학과)교수는 “전국적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제주지역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부족해 많은 교수님들의 서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은 확신이다”고 덧붙였다.

김해진 기자

기자가 바라본 정책토론회

2차 정책토론회서 공약 이행 방안·비전 보여주길 기대



정책토론회는 학생들이 투표에 임하기 전 중앙자치기구 후보자의 공약을 검토하고, 학생들을 위해

내년 총학생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직접 질문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다.

그러나 11월 1일 열린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일당백’ 총학생회 후보자들이 대충 임한다고 느꼈다. 학생들이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법을 물어도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은 것도 많았다.

예를 들어 수강신청 마일리지 제도가 연세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다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후보자는 수강신청 마일리지 제도는 한 가지 개선안 일뿐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수강신청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약으로 내건 것처럼 보였다. 차라리 타 대학의 사례를 찾아보고 가장 최적이 된 방안을 갖고 출마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또한 대운동장 트랙의 주성분인 우레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발암물질 없는 우레탄을 깔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후보자는 우레탄 공사는 1억원 가량 드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는 총학생회 예산보다 많아 자체 의지나 역량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업

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법을 언급했어야 했다. 그게 없다면 공약으로 내걸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 2학기에 장학금 제도가 바뀌면서 장학금 액수 등이 줄어들었는데 학생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자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2차 토론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장학금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듯 총학생회 정책토론회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기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책토론회를 다 지켜봤다. 그 당시 총학생회 후보자들은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그

당시 경선이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한 점도 있었다. 하지만 단선이 라고 해서 정책토론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일당백’ 총학생회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은 11월 10일 열리는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고, 2차 정책토론회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이번 1차 토론회를 보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 교육방송은 정책토론회 영상을 편집해서 제주대미디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차 정책토론회는 <https://www.youtube.com/watch?v=hrdRN2tpsvQ#t=2222>에 올려져 있다.

김동현 기자

환경보건센터,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 게재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성철 의학과 교수)가 최근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증가가 알레르기 항원에 세로이 감작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SCI)인 American Journal of Rhinology & Allergy 2016년 7월 호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소아에서 알레르기 항원에 세로이 감작은 증가된 체질량지수와 연관성이 있다(New allergen sensitization might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body mass index in children) ”다.

이 연구는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와 체질량지수를 조사해 2년 뒤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통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새로 알레르기 감작이 발생한 그룹에선 다른 그룹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많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비만아동의 경우 체내 지방세포가 증가할수록 혈액 내 알레르기 유발하는 면역세포 등의 증가를 초래해 기도 과민성을 증가시키고 알레르기 염증 반응의 역치를 낮추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레르기항원에 보다 용이하게 알레르기 체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진행됐다.

기존의 비만과 알레르기 소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횡단적 단면연구나 종적 연구에서는 불충분한 연구 대상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 정도에 그쳤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첫 번째 연구로써 가치가 있다. 김동현 기자

통역번역대학원

11일 입시설명회 진행

통역번역대학원(원장 김원보 통역번역대학원 교수)이 11일 오전 10시30분 대학 동시통역실에서 2017학년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선 통역번역대학원 소개와 한영과·한독과·한중과·한일과 등 4개 학과에 대한 입시설명이 진행된다.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 모집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2월1일까지다.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25명, 특별전형(재외국민 및 외국인) 약간 명이며, 학과별 인원은 지원자 수에 비례해 선발한다.

전공외국어 필기시험과 면접은 12월20일이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30일 이뤄진다. 김해진 기자

강동현씨 대한수의학회 우수논문발표상

강동현(수의과대학 4)씨(지도교수 김재훈 수의학과 교수)가 경남 진주 MB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수의학회 2016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강씨의 발표 논문 제목은 “개에서 발생한 전이성 귀지선 암종(Metastatic ceruminous gland adenocarcinoma in a dog)”이다.

이 논문은 개(코카스파니엘 종)에서 발생한 외이도의 귀지선 암종의 병리조직학적 특징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사이토케라틴(cytokeratin) 발현 양상을 증명했다.

또한, 반려 동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비해 악성 종양의 치료와 대책 및 반려 동물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주변의 림프절까지 전이하였음을 규명한 논문으로 국내에서 첫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진 기자

제36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62주년을 맞이하여 제36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
- 접수마감 : 2016년 11월 21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5만원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락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백록학술상특집호 (2016년 11월 30일 발행)

제주대신문

교수시론



노대원
국어교육과 교수

“

제주에 와서 느낌의 미학과

적절한 습도의 중요성 느껴

넘치는 것은 버리고

모자란 것은 채워야 한다

”

돌하르방



김명지
특별기자

결국 성난 민심은 폭발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백남기 농민이 생을 달리했던 민중총궐기와 함께, 이화여대의 ‘이화의난’이 바로 혼란한 이 정국(政局)의 시작점이다. 대학 본부의 일방적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 추진에 난(亂)을 일으킨 이들은 공권력의 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결국 대학본부가 사업추진을 취소하면서

속도와 습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살아보니 어떠냐고 묻는다. 올 봄 학기부터 제주대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일 년이 채 못 된 셈이다. 그래도 지난 겨울의 끝 무렵부터 올 가을까지 살아봤으니 제주의 사계절을 그럭저럭 조금씩 맛본 게 된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답을 내놓지만 그때그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풀어왔던 것 같다. 제주의 ‘마술적 리얼리즘’(남미 문학의 놀라움을 향한 이 용어는 본래는 ‘마술적 현실’이 오해된 것이라 한다)에 갇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부터 택배비처럼 조금은 더 지불해야 하는 고독, 제주의 몇몇 사회적 문제와 현안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주민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체험과 의견의 견해를 내놓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나만, 같은 체험을 달리 말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통찰력을 매워 보면 어떨까.

제주도에 와서 달라진 건, 속도와 습도라고 말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습도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자기만의 리듬으로 세상을 살아가 얼마나 어려운 요즘이다. 그런 시절에 아름다운 자연의 리듬에 눈 맞추는 일은 얼마나 복된가.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사뭇 다르다고 말한다. 정말로 자동차

로,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도보로 여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체험일 것이다. 느린 걸음으로 제주의 길과 숲을 걸을 때, 자동차로 달릴 때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는 작은 들꽃과 꽃잎, 돌담 위로 엮보이는 노랑게 익어가는 굴, 나무그늘 아래 작은 버섯, 비 갠 청명한 하늘,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인 낙조.

제주의 높은 습기도 나를 놀라게 했다. 옷과 가방에 피어나는 곰팡이꽃과 방바닥의 축축함이란! 한편 심한 안구 건조로 입기와 쓰기가 무척 고생스러웠던 내게 봄날의 축축함이란 또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나는 그렇게 제주의 습도로 두 번 놀랐다. 생각해 보니 사람살이에서도 적절한 습도는 꽤나 중요하다. 여름보다 겨울에 감기에 더 잘 걸리는 이유는 낮은 습도 때문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안구건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절한 습도는 축축한 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너무 높은 습도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불편을 만들어낸다. 너무 높은 면역이 자가면역질환을 초래한다고 들었다. 면역력 역시 너무 높아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적절한’ 면역력이 건강한 삶의 조건이다. 습도 역시 마

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조화와 균형에 대해 말하게 된다. 중용의 미학이라니, 이 얼마나 재미없고 관습적인 이야기란 말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조화와 균형이란 것도 수많은 부조화와 흔들림 속에서 이뤄진다. 그렇다면 조화와 중용의 감각이란, 어쩌면 보수적인 부동자세의 관념이 아니라 엮나가고 빚나가는 일탈과 불균형 속에서 겨우 아슬아슬하게만 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너무 넘치거나 모자란 것은 좋지 않지만, 넘침과 모자람의 기우뚱한 총합이 넘친 것을 버리게 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게 한다. 늘 느리게만 산다면 역시 새로운 풍경의 발견과 경탄의 순간이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삶의 리듬 속에서 다른 공기를 호흡할 때, 새로운 풍경은 탄생한다. 여행이나 이주의 경험이 값진 것은 그래서다. 오늘 느꼈다고 부끄러운 시선이 나무 아래의 작은 버섯을 돌아나게 했다. 그런 걸음이 없다면 내게 나뭇 가지 위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 물론 적절한 습도가 없다면 곰팡이의 사촌이나 팔촌쯤 될 버섯이 자랄 수 없을 터. 실은 그 버섯을 보고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맘먹었다. 이 어수룩한 글조차 제주의 마술적인 리듬과 공기 속에서 썩든 것이다.

다시 만날, 우리의 세계

이화인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이 사건은 올해 온갖 권력의 압제로부터 일궈낸 시민들의 큰 승리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화의난은 이들만의 승리는 아니다. 이 난은 우리사회의 많은 시민들의 첫증을 가지게 했다. 이길 수 있다는 시원함을 선사했다. 이들은 또, 이후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대학 부정입학, 성적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불을 지폈다.

각종 논란에도 끄떡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로 끝없이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만이 긍정 평가했다.

‘개폐지’ 취급을 받았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광장으로 모이고 있

다. 지난 5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으로 시민들이 대거 모였다. 이날 집회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추산 10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가족단위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 초등학교생들도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대학의 한 학생은 “지금까지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주최 추산 15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이 밖에 광주, 원주, 부산, 경주 등 여러 도시에 서도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들 소망의 저변에는 단순히 현 정부의 퇴진에 그치지 않는다.

‘헬조선’이 막을 내리기를 열망한다.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길, ‘7포세대’ 청년들은 더 이상 판가를 포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길, 중장년은 자녀양육비로 허덕이는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노년층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의 끝을 마무리할 수 있길.

‘이화의난’ 투쟁이었던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Into the New World)이 노래 가사처럼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길 희망하고 있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독자기고

올바른 대표를 세우는 방법

이유주
정치외교학과 2



한 집단의 대표는 그 집단의 견고한 기반과 기둥의 역할을 한다. 지지기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에 그만큼 기반은 중요하다. 학교 안에서도 대표를 뽑기 위해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선거를 준비한다. 학교의 대표, 혹은 단과대의 대표가 되기 위해 나온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후보자들 가운데 대표는 하나이며, 그 대표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 학우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후보들을 뽑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우선 우리는 밑바탕에 전제되어 있을 법한 학연, 지연, 혈연과 관계된 연고주의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연고주의는 전통사회 때 가족주의 문화로부터 시작됐으며 사회적 관계 보다는 일차 집단적 연고를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더 뿌리 깊은 ‘관당’(혈족, 친족을 의미)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밑바탕에 두고 투표하는 것은 더 나은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후보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제대로 분석해봐야 한다. 나눠주는 홍보물을 읽어보거나 그 후보에 관련한 참모진들에게 정책에 관해 부연 설명을 듣는 것은 더 세세한 내

容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의문이 풀리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 투표는 필수라는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투표하는 것 자체에 귀찮거나 관심이 없는 부류이며,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서 환멸감을 느끼고 냉소주의에 빠져 무기력한 부류이다. 두 번째 경우는 투표 참여를 거부하는 것도 의사표현 중 하나이지만, 공국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어드는 후보가 없으면 무효표라도 던져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무효표를 잡으려고 더 좋은 정책과 방법들이 고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대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공동체가 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참여율이 적어도 누군가는 대표의 자리에 설 것이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된다. 우리 학교와 학우들을 대표하는 자리를 뽑는 것에 대해 우리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정치 참여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주대학교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필요한 이유

양근원
정치외교학과 2



지난 10월 24일, 2017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이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헌법 개정을, 특히 대통령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5년 단위로 국가 지도자가 새로 선출돼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는 폐해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외교·경제 분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며 의회의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몇몇은 영국과 일본처럼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고 의원들이 장관직도 겸하며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장악하는 형태인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거나,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직을,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모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후진국적인 국회 능력을 볼 때 국민들이 행정부와 국회 모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우리나라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대신, 연임의 길을 터놓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크게 손보지 않아 혼란을 줄일 수 있고, 행정부와 의회가 여전히 독립돼 있어 서로 견제·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최장 8년까지 재임할 수 있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중임이 되는 편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어줄 뿐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반대 입장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지지율이 낮을 때가 많아 무조건 중임할 확률이 높지는 않고, 오히려 중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충격요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설

어디엔들 도리가 없겠는가

올해 초 경기도 부천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 차량만 골라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된 일이 있다. 차량 29대에서 핸드백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A씨가 기사화된 까닭은 훔친 금품으로 군주론과 논어 등 철학서 50여만 원 어치를 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절도 전과 9범인 피의자는 가정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공부를 하고 싶어 철학서를 샀다고 한다.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된 민간인 비선 실세 때문에 헌정이 중단될 지경에 이르고 보니, 군주론과 논어를 훔치는 절도범이 세상 달리 보인다.

도둑하면 공자 당시의 도척이라는 인물이 생각난다. 중국에서는 도둑의 대명사로 불리기 때문이다. 장자(莊子)는 남화경(南華經) 도척 편에서 공자가 도척을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다는 우화를 실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좁은 도둑은 잡히지만 큰 도둑은 제후가 된다(小盜者拘大盜者爲諸侯)”이다. “내가 믿고 있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제 정신을 잃고 허둥대기만 하여,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일을 꾸미는 데 쓰일 뿐이므로 올바르고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따끔한 도척의 말에 공자는 두 번 절하고 쟈 걸음으로 도망쳤다고 장자는 전한다.

남화경 거현 편에서는 아예 대놓고 풍자한다. 부

하가 도둑에게도 도리가 있는지를 묻자, 도척은 ‘어디엔들 도리가 없겠느냐(何適而無有道耶)’면서 이렇게 대답한다. 훔치러 들어 갈 때 재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아는 것이 뛰어나[聖]이고,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을 과감함[勇]이고, 도망쳐 나을 때 뒤에 나오는 것이 올바름[義]이고, 성공할지를 아는 것이 앎[知]이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인간다움[仁]이다[夫妄意室中之藏聖也入先勇也出後義也知可否知也均分仁也]. 유학에서 추구하는 다섯 가지 윤리준칙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도둑의 도리로 바꾸놓은 것이다. 도척의 입을 빌려 “어디엔들 도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장자의 풍자는 위선자들을 상대로 한 준엄한 비판이다.

나를 대신할 누군가를 뽑는 일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조만간 학생자치기구의 일꾼을 뽑아야 할 우리 학생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렇게 뽑힌 이들은 나를 대신해서 성가신 일을 해 줄 고마운 이들이다. 그들은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지도자로 불린다. 하지만 어떻게 불리든 나를 대신해주는 공인(公人)일 뿐이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나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자치기구의 일꾼으로 나와 준 고마운 후보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적인 영역으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역사의 준엄한 비판을 두려워해야 할 공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는 방향을 요구받고 있다. 보편적으로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키는 능력과 더불어 복잡한 도전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해결 역량과 주도성을 갖출 필요성이 강조된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이 등장했는데 실행에 앞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 열린교육과 창조경제가 구체화되지 않은 채 강조되며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또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이를 만드는 코딩 기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체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인문학적 소양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문화와 예술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인간 대 기계의 대립 구도로 한정하는 편협성을 넘어 기술을 인간의 편익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폭넓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 본질일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대학 내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이슈를 다뤄며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 도서관은 전자자료 구축에 6억원 이상을 지불한다. 엄청난 자료들이 디지털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 글쓰기를 훈련받는 것은 대학교육의 기본으로 특히 소통능력이 최근 유네스코 등에서 기본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SMS나 SNS에 익숙해져 점차 단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토익이나 토플 등에서 글쓰기를 평가에 포함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논리적 글쓰기를 독자 과목으로 운영하기보다 모든 교양 강좌에서 과제 형태로 포함하여 교과목내에서 자신의 주제를 선정해 도서관 전자자료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선별, 검토하며 내용을 조직화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구체적으로 배양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현실 참여적 교육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다.

최근 제주지역은 오라관광지구와 영어교육도시가 뜨거운 이슈로 전자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측면에서 후자는 학교부지와 건물이 무상으로 제공되었음에도 운영 중인 학교들은 수익을 국외로 반출하려 하면서 지역사회 공여는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을 규제, 관리할 구체적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매 상황에 맞추어진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었는가? 담당자들은 상위법규,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며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제주에서 벌어지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면 이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능력의 부족이고 지역사회 공무원의 다수를 공급하는 제주대학교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이슈 Check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목소리 내야



정보화 사회인 요즘 SNS와 포털사이트에서는 무수히 많은 댓글을 통해 수 많은 사건이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된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루머가 더 사실 같아보이는 정신나간 세상’,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로 최순실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근혜정부의 무능함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경유착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국정은 마비됐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11월 5일에는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으며 광화문에 모인 약 20만명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도올 김용옥은 “대통령의 퇴진은 정치적 해결로 이뤄질 수 없으며 오직 국민의 깨어진 의식만이 가능하게 한다”며 혁명을 강조했다. 정치인들 또한 제2의 4·19혁명을 거론하며 국민의 분노가 한계치에 왔다고 말했다.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이란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당시 3·15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서울 시내를 가득 매워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에 초석을 닦았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4·19와 맞먹는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016년 11월, 대한민국 국민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물리친 4·19혁명과 군사독재의 종말을 고하고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의 대리인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와대 안에서 문자로 국무총리를 해고하고 임명하는 등 빠져나갈 굴리만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그간 흩어져있었던 퍼즐의 조각들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루머는 사실이 되고 있으며, 불신은 현실이 됐다. 과연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의 끝은 어디일까?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 김해진 기자

» 시험 부정행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양심 저버리는 부정행위 규제·징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시도조차 말아야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정행위자를 근절하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컨닝페이퍼를 작성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하기 수월해졌다. 많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데 여건이 좋아진 것이다. 그로 인해 최근 학사과는 부정행위 근절안을 발표했다. 제주대신문은 학생들이 왜 부정행위를 하는지, 학교 측은 어떤 대안을 발표했는지 알아보고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알아봤다.

<편집자주>

◇늘어나는 부정행위와 불만의 목소리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중간고사 기간, 학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른다. 담당 교수는 시험과 관련된 공지를 전달한 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답안지를 받은 학생들은 볼펜을 쥐고 빠르게 답안지를 작성해 나간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의 눈으로 학생들을 관찰한다.

시간이 흐르고 주변의 눈치를 보던 한 학생은 순간의 빈틈을 노려 미리 완성된 답안지를 꺼내 새로 받은 답안지에 옮겨 적는다. 몇몇 다른 학생들 또한 핸드폰, 책상, 메모지에 적은 컨닝페이퍼를 살펴서 꺼내 부족한 답안지를 채운다. 감독관의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일어난 이 사건은 모 학생이 제주대신문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그 방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횡소조차 늘고 있다. 부정행위가 자주 목격되다 보니 몇몇 학생들이 온라인상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016년 10월 제주대학교 아라토론방에는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시험 그리고 양심’이라는 “매년, 매학기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학생이라면 이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엄치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중간고사 후에는 제주대학교 대나무 숲의 한 게시물에 “제발 시험 볼 때 컨닝 줘 하지 마세요. 부끄럽지도 않은 신가요”라며 “다른 사람들은 컨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선 안되는 일이라서 일

스마트폰 등으로 부정행위 방법 다양해져

상위권 학생도 높은 성적 위해 부정행위 시도

최근 학사과서 부정행위 대책안 발표했지만,

근본적 대책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이어서 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 먹어서 부끄러운줄 알라”는 글이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게시글에는 “인정한다”, “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교수도 문제”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석 학사과 수업팀장은 “중간고사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를 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이다. 성적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대학생들은 ‘안 걸리면 되는데 어쩔지’라는 마음으로 부정행위를 한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낙제를 피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상위권인 학생들도 더 뛰어난 성적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정행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하는 방법이 쉬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들도 다양해지고 감독도 소홀해지고 있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가 더욱 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행위를 묵인하는 분위기도 한 몫을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학생은 “대학교에 들어와 처음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며 “몇

몇 교수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기 쉽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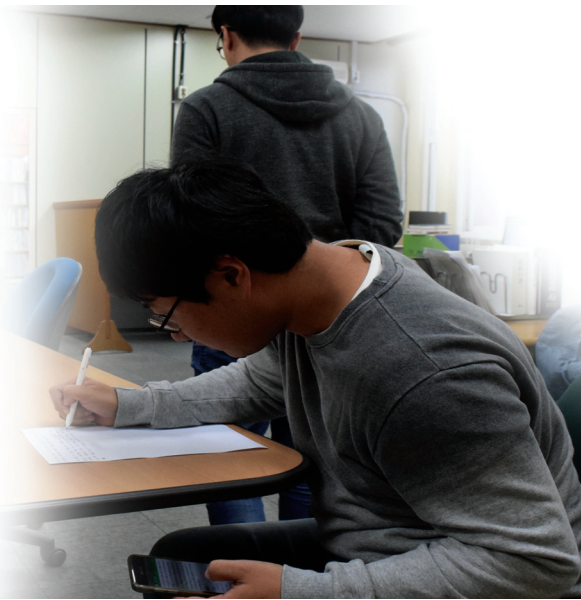
과거 제주대에서도 교수가 시험에 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잘못이 지적되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이 있는 강의실에 교수가 한명밖에 없어 부정행위를 잡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학사과 대책안

최근 학사과는 늘어나는 부정행위를 막고자 대책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중 부정행위 판정기준에 디지털기기 소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디지털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소지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강화해 부정행위 사안에 따른 처벌기준을 설정하고 지침으로 상향 조치된다. 기존에 시험 관리 방안도 강화될 예정이다. 수업 수강생이 40명 이상인 경우 분반을 해 시험을 치루며, 감독도 2명으로 배정된다.

이와 함께 강의평가문항에 부정행위에 관한 설문을 추가해 집중관리한다. 만약 A교과목에서 컨닝을 하는 학생을 목격했다면 강의평가기간에 설문조사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학사과는 11월 중순부터 계획을 시행하고 시험 부정행위 근절 및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학생은 학사관리규정 제7절 제44조(시험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4항에 의해 F로 처리된 후 소속 대학장, 대학원장에게 징계



하이슈토론방	» 온라인투
제목	» 시험 그리고 우리의 양심
작성자	» 김경한

개강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시기가 되면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대

방을 새며 공부하는 것도 다반사, 몰에 해를다는 최소한의 양심과 엄치를 가져달라”고 일침했다.

를 받게 된다.

이근석 팀장은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해지다보니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학생들과 감독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행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은 말아야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초 전북대는 2015년 기말고사 때 발생한 집단컨닝사건에 대해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생들도 수업평가보고서를 조작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타학교에서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적발됐을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하고 징계 혹은 재시험을 치루는 등의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학생들이 부정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시험의 감독관들 또한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봤다면 망설임 없이 학생의 잘못을 꾸짖어야 한다. 감정에 휩쓸려 묵인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배우는 자로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부정행위로 얻은 학점은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해건 기자

» 1인 시위란 무엇인가

1인 시위, 전달효과 높은 의사 표현

집시법 제재 밖... 누구나 쉽게 가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분노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11월 5일 광화문에는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각 지역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며 국가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의 자유란 다수인이 어떤 공동목적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화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집회는 시위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1인 집회로 나눌 수 있다. 2인 이상이 집회를 하는 경우 개최할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한 후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1인 시위는 법적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허가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요즘에는 집시법으로부터 자유로운 1인 시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주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다종의 시민이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려면 경찰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1인 시위는 집시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장소·행정절차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될 뿐, 다른 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며 “예를 들면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이 판단했을 때 다중에 큰 피해를 가하지 않고 방해가

안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사회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도 한다. 학생, 직장인, 국회의원 등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증가 추세의 원인이다.

11월 3일 제주대 학생회관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한 학생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주도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잦고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됐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으나 전달효과는 뛰어났다. 학생들은 관련 사업에 관심을 표했고 여론의 형성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한·일 위안부 협상제개, 세월호 진상 규명 등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많은 1인 시위가 이뤄졌다.

서영표(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집단적 시위가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며 “하지만 사람의 동원이 쉽지 않은 현대 사회에서 1인 시위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전달효과가 높은 의사표현 방법이다”고 말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요구는 진화했고 그에 따른 시위형태 또한 변화했다. 탈레이 1인 시위는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얻었고 여론을 형성했다. 자신만의 1인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떤가?

김해건 기자



일본영사관 앞에서 위안부와 관련한 1위 시위를 하고 있다.

www.ihalla.com

제주지역

신뢰도 1위! · 발행부수 1위!!

리얼미터 전국지방신문 여론조사 · 2015년도 한국ABC협회 인증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한라일보

